

우리 마을에 햇빛으로 돈 버는 발전소

「햇빛소득마을」 주민 설명회

2026. ○. ○. | 강사 손준원

[이미지: 마을 지붕 태양광 + 환하게 웃는 어르신]

강사 인사 — 손준원

- 햇빛소득마을 전문강사 (행정안전부)
- 공조·냉동 분야 30년 — 마을 어르신과의 강의 경험 다수
- 오늘 약속: 어려운 말 쓰지 않고 편하게 말씀드립니다

[이미지: 강사 사진 + 한줄 프로필]

여러분 옆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.

오늘 세 가지만 보여드립니다

- ① 햇빛소득마을이 뭔지
- ② 옆 마을이 실제로 얼마 벌고 있는지
- ③ 우리 마을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

[이미지: ①②③ 큼지막한 아이콘 — 햇빛 / 돈 / 마을]

중간 10분 휴식 · 끝에 30분 질의응답

햇빛소득마을이란?

우리 마을 빈 땅·지붕·저수지에 태양광 발전기를 놓
고,
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팔아 마을 살림에 쓰는 것

[이미지: PDF 2쪽 마을 개념도 — 저수지·지붕·축사·농지 + 가운데 협동조합]

옛날 두레·품앗이를 이번엔 햇빛으로 함께

이런 곳에 놓을 수 있습니다



지붕형

마을회관·축사 지붕 위



영농형

농사 위 공중에 패널



수상형

저수지 물 위에 띄움



빈땅형

도로·철도 옆 노는 땅

[이미지: PDF 4쪽 4유형 사진 그대로 2×2 배치]

땅이 없어도 됩니다. 우리 마을 모양에 맞춰서.

옆 동네 여주 구양리 마을 이야기

 주민 70가구가 함께 시작

 매달 약 1,000만 원 수익

 마을버스 (무료)

 무료 점심 식당

 학생 장학금

[이미지: PDF 3쪽 구양리 항공사진 + 마을회관 태양광 사진]

이게 진짜 가능한 일입니다. 바로 옆 동네입니다.

다른 지역 사례도 보겠습니다

- 비슷한 모델로 여러 마을이 성과 — 한 군데만 잘 되는 게 아님
- 규모 / 매월 수익 / 수익 활용 비교 (※ 실제 수치는 v0.2에서 확정)
- 우리 권역에 가까운 마을 사례 — 사무국 확인 후 보강 예정

[이미지: 사례 마을 사진 + 비교표 자리]

지금은 임시 — 사무국 자료 받아 v0.2에서 채움

우리 마을엔 어떤 좋은 점이?

- 💰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(20년 이상 안정적)
- 👵 그 돈이 어르신께 돌아갑니다 (점심·버스·복지)
- 🌱 안 쓰던 땅·지붕이 살아납니다
- 🤝 마을 공동체가 다시 모입니다

[이미지: 어르신·아이 함께 어우러진 따뜻한 사진]

돈만이 아니라 마을이 다시 모이는 게 더 큰 가치

혼자 하시는 게 아닙니다

-  마을 — 의견 모으고 신청
-  시·군청 — 허가 / 현장 지원
-  추진단 — 선정·평가·총괄 (행안부)
-  전문 시공사 — 실제 공사 담당
-  현장지원단 — 사업 전 과정 동행

[이미지: PDF 13쪽 추진 체계도 단순화 + 정부기관 로고]

정부 부처 여러 곳이 같이 뒷받침

여기까지 정리하면

- ✓ 마을이 햇빛으로 매달 돈을 번다
- ✓ 그 돈으로 어르신·마을에 쓴다
- ✓ 정부와 전문가가 같이 한다

[이미지: 3줄 체크리스트 큼지막하게 + 어르신 미소]

다음 시간엔 '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나' 자세히 봅니다.

잠깐 한숨 돌리시고



10분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



인쇄물 한 부씩 받아 보세요



옆 분과 잠깐 이야기도 나눠 보세요

[이미지: 따뜻한 차 한잔 + 시계 일러스트]

화장실·물 한잔 다녀오세요



10분 휴식

잠시 후 다시 시작합니다

[이미지: 큰 시계 + 따뜻한 차 일러스트 — 배경 전체]

물·차 한잔 하시고 편하게 계세요

2부 — 우리 마을은 어떻게 시작하나

- ① 어떻게 시작 (3단계)
- ② 돈 부담은 얼마나
- ③ 안전·위험은 없는지
- ④ 설치 후 운영은 어떻게
- ⑤ 우리 마을의 첫걸음

[이미지: 길 그림 + 단계별 아이콘]

한 단계씩 차근차근 봅니다

이렇게 시작합니다 — 큰 3단계

마을 주민 의견 모으기 (70% 동의)

마을 모임(협동조합) 만들기 (10명 이상)

정부에 신청 → 선정되면 시작

[이미지: 단계 화살표 그래픽 + 각 단계 일러스트]

큰 줄기는 세 단계. 한 단계씩 살펴보겠습니다.

1단계 — 마을 주민 70% 동의

- 마을 총회를 열어 공식 승인 받기
- 자격 있는 주민 70% 이상 동의 (두 가지 모두 필요)
- 강제가 아니라 마을이 함께 결정하는 것
- 한 사람이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

[이미지: 마을 회의·손 들어 의견 모으는 어르신]

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— 마음 모으기

2단계 — 마을 모임(협동조합) 만들기

- 협동조합 = 마을 사람들이 같이 주인이 되는 모임
- 최소 10명 이상 모이면 됨
- 마을에서 1년 이상 사신 18세 이상 주민이 조합원
- 이 모임이 발전소의 주인
- 들어온 돈도 이 모임이 받음

[이미지: '함께 주인' 일러스트 + 조합 구성 다이어그램]

옛날 마을 두레와 비슷합니다

3단계 — 신청 → 선정 → 공사 → 운영



[이미지: 가로 시간선 타임라인]

신청부터 발전소 돌아갈 때까지 보통 1~2년. 공사는 전문 시공사가 합니다.

돈은 마을이 다 내는 게 아닙니다

마을이 직접 내는 돈은
전체의 약 15% 안팎

-  정부 융자 (저금리) + 보조금
-  농협·신협 등 지역금융 대출 [이미지: 큰 파이차트 — 정부지원 / 대출 / 마을자체]
-  마을 자체 부담 (일부분) 한꺼번에 큰돈 내는 게 아닙니다 (※ 실제 비율 v0.2 확정)
-  부담분도 발전소가 돈 벌어서 갚아갑니다

위험하거나 시끄럽지 않습니다

-  소음 거의 없음 (기계가 안 돌아감)
-  법정 안전검사 의무 (설치 전·정기검사 4년 주기)
-  농사도 그대로 가능 (영농형)
-  설치는 전문 시공사 — 어르신이 직접 하실 일 없음

[이미지: 어르신 + 발전소 배경 · 안심되는 분위기]

법으로 안전검사 의무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

선정 후 운영은 어떻게?

-  발전·고장 상태 자동 모니터링 (REMS)
-  마을 리더 교육·우수사례 공유 (계속 지원)
-  수익금은 마을 공동 용도 (정관에 미리 명시)
-  마을이 끝까지 주인 — 외부 매각 불가

[이미지: 모니터링 화면 + 마을 복지 활용 예시]

설치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함께 관리

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

Q. 우리 마을은 땅이 작으세요?

A. 지붕·저수지도 가능합니다

Q. 이미 있는 발전소 사도 되나요?

A. 안 됩니다. 새로 짓는 마을만.

Q. 선정 안 되면요?

A. 다음 회차 재신청 가능

Q. 이미 협동조합이 있는데?

A. 정관에 '재생에너지 사업' 명시 후 활용

[이미지: 말풍선 4개 큰 글자]

더 궁금한 건 잠시 후 Q&A 시간에 다 받겠습니다

우리 마을이 오늘부터 할 일

- ✓ 오늘 — 이 설명 듣기 (지금!)
- ✓ 다음 주 — 어른들끼리 모여서 '한번 해볼까' 의논
- ✓ 그 다음 — 시·군청 담당자와 상담
- ✓ 그리고 — 전체 주민 설명회 → 동의 수렴
- ✓ 목표 — 협동조합 설립 & 신청서 제출

[이미지: 큰 체크박스 + 일정 일러스트]

첫걸음 = 어른들끼리 다시 한 번 모이기

햇빛이 비치는 한, 마을에 돈이 들어옵니다

어르신들이 가꿔오신 우리 마을에
이제는 햇빛이 또 하나의 농사가 되어 줍니다

[이미지: 황금빛 노을 + 마을 풍경 — 감성 마무리]

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잠시 후 30분 질문 받겠습니다.



궁금하신 점을 말씀해 주세요

- 땅이 적은 우리 마을도 되나요?
- 이미 협동조합이 있는데도 되나요?
- 선정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?
- 전기 너무 많이 만들면 어떻게 하나요?
- 마을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요?
- 선정 후 마을 사정이 바뀌면 어떡하나요?

[이미지: 마이크 + 손 든 어르신 + 강사 연락처/QR 하단]

30분 충분합니다. 답을 모르는 건 사무국 확인 후 알려드리겠습니다.